

빈곤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탐색

오 경 자[†] 김 은 이 도 례 미 어 유 경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기초생활보호대상인 빈곤가정 청소년 146명(남 78, 여 68)과 비교집단 청소년 327명(남 160, 여 167)의 심리사회적 적응수준을 비교하고, 환경요인, 개인적 특성, 사회적 지지요인 등 이들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역할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빈곤가정 청소년과 비교집단은 우울, 외현화 문제행동 등 적응지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전반적으로 가족 및 또래환경요인은 우울과 외현화 문제행동에 모두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는 반면 사회적 지지요인은 우울에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설명력은 매우 적었고, 개인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 적응지표와 고른 상관관계를 보였다. 구체적인 위험요인으로는 가족의 정서적 환경, 친구의 비행성향, 그리고 회피적 대처방식이 우울, 외현화 문제행동 등 부적응의 지표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여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나타났고, 부모, 또래의 사회적 지지는 열악한 환경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켜주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하였다.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전반적인 내용은 빈곤집단과 비교집단의 남녀 청소년에서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났으나 부모지지의 보호적 기능은 빈곤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경향이 있어 집단의 특성과 환경적 맥락에 따라 그 비중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주요어 : 빈곤,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위험요인, 보호요인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3-선도연구지원사업H00020).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오 경 자 /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FAX : 02-365-4354 / E-mail : kjoh@yonsei.ac.kr

빈곤가정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은 단순한 경제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좌절 뿐 아니라 부모의 이혼, 별거 등으로 인한 가족의 와해, 부모의 약물남용, 우울증 등의 정신건강문제, 가정 폭력 등 부정적 경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Alpern & Lyons-Ruth, 1993), 심리사회적 적응에서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 Duncan & Brooks-Gunn, 1997; Mayer, 1997). 실제로 빈곤가정에서 성장한 아동 청소년들을 조사한 최근의 연구는 이들이 주요정신장애로 진단받을 확률이 대조군에 비하여 3배 이상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Costello, Angold, Burns, Stanl, Tweed, Erkanli, & Worthman, 1996), 빈곤이 아동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심각함을 시사하고 있다.

빈곤가정의 열악한 환경이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빈곤가정의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 중에서 매우 높은 적응수준을 보여주는 사례들도 상당수 보고되고 있어 (Garmezy, 1991; Werner & Smith, 1992), 빈곤한 가정환경이 모든 경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개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을 찾으려는 노력과 함께 빈곤가정에서의 성장경험이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기제를 밝히려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열악한 환경에서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심리적 부적응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과 그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보호요인의 두 가지로 나누어 논의되고 있다.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은 동일한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집단의 적응수준에서의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특히 최근에는

취약한 환경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에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Jessor, 1991; Luthar, 1991).

빈곤가정의 아동 청소년들의 적응에서의 위험요인은 크게 나누어서 가족 관련요인, 학교 및 지역사회관련요인,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의 세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족 관련요인의 대표적인 예로서, 미혼모 혹은 이혼한 여성의 자녀들은 소득수준으로 인한 효과를 통제 한 이후에도 정서 및 행동장애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학업성취도 또한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McLanahan, 1997; Offord, Boyle, & Racine, 1991). 또한 빈곤가정에서 매우 높은 빈도로 관찰되는 부모의 우울증, 음주문제, 약물남용 등은 이들의 양육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 부모-자녀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eCubas & Field, 1993). 반면 부모가 엄격하게 자녀의 행동을 감독하는 경우, 자녀의 반사회적 일탈행동의 위험성 및 물질남용의 위험성이 현저하게 감소하며 (Haapasalo & Tremblay, 1994; Peterson et.al, 1994), 학업성취 수준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Baldwin, Baldwin, & Cole, 1990). 또한 Osborn (1990)은 사회경제수준이 낮은 가정의 아동들을 5년과 10년에 걸쳐 추적 조사한 결과, 부모의 지지적이고 온정적인 양육태도가 열악한 가정환경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함을 보고하였다.

빈곤가정 자녀의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는 사회적 지지요인이다. 예를 들어 확대가족의 도움, 신앙과 교회생활 등 빈곤가정 부모들이 경험하는 소외감과 외로움을 완화시키는 사회적 지지는 중요한 보호요인이 될 수 있다 (McLoyd, 1990; Werner & Smith, 1992). 또한 학교에서의 긍정적 경험은 빈곤가정 아동 청소년들에게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DuBois, Felner, Meares, & Krier, 1994).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대처방식 또한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인데, 회피적 대처방식은 부모가 평정한 청소년의 부적응을 예측하는 경향이 있으며(Gomez, Bounds, Holmberg, Fillarton, & Gomez, 1999), 높은 수준의 수동적 대처방식과 낮은 수준의 적극적 대처방식은 우울과 상관이 있었다. 또한 Krenke(2000)는 종단 연구에서 정서적, 행동적 문제와 대처방법과의 관련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일반적으로 빈곤의 부정적 영향은 어린 연령 집단에서 더 두드러지지만(Duncan & Brooks-Gunn, 1997; Fitzpatrick, 1993), 비행 약물남용 등의 일탈행동의 위험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커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uthar, 1999). 지능은 긍정적 적응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Werner & Smith, 1992), 우수한 대인관계기술, 높은 자아존중감 등의 개인적 특성도 빈곤한 가정환경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알려져 있다(Cowen, Work, & Wyman, 1997; Luthar, 1991). 그러나 최근 Luthar(1997)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는 높은 지능이 가지는 이점이 현저히 감소하여 지능수준에 따른 학업성취에서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긍정적인 또래관계가 도리어 비행 등의 일탈행동을 촉진시키는 경우도 있어(Luthar & Mcc Maon, 1996), 보호요인의 역할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 개관한 바와 같이 빈곤가정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련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들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미국을 비롯한 서구 문화권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지금까지의 국내 빈곤계층 연구는 주로 경제학적 측면이나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다루어졌고(예, KDI 보고

서, 1981), 빈곤의 영향을 심리적 측면에서 다룬 연구는 매우 드물다. 최근의 경제위기와 관련해서 실직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일부 있으나(정환구 오경자, 1998; 정혜경 이훈구 윤소연, 1998), 실직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빈곤경험과는 질적으로 다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결혼가정 등 빈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문제들의 영향을 조사한 연구들과(예, 고정자, 1992; 오승환 2001), 빈곤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조사한 연구(박현선, 1998)는 일부 있었으나 이들의 심리적 적응을 다각도로 평가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국내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빈곤한 가정환경이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한 지역에서도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Costello, Farmer, Angold, Burns, & Frkanli, 1997), 서구의 연구결과가 우리 사회에도 일반화될 수 있는지는 확인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생활보호대상인 극빈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 빈곤한 가정환경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2) 이들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초생활보호대상 가구의 청소년 집단과 이들과 지역사회 및 학교 환경을 공유하지만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교집단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비교함으로써 빈곤 집단 청소년들의 취약성이 나타나는 영역을 밝히고, 아울러 이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내용과 영향력이 빈곤집단과 비교집단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서울지역에서 정부의 생활보호지원 대상을 포함한 저소득층 가족이 밀집되어 있는 영구임대주택 단지를 포함하는 지역의 중학교의 1학년 및 2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 청소년에게 설문을 실시하여 총 473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 중 각 척도별로 무응답 항목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는 각각의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빈곤집단은 수급가정 및 무료급식대상 청소년으로 관할 사회복지관 및 해당 학교의 사회복지사의 협조를 얻어 파악되었고, 비교집단은 동일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빈곤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로 구성되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청

소년의 평균연령, 부모의 교육수준을 집단별, 남녀집단 별로 표 1에 제시하였다.

비교집단과 빈곤집단은 부모의 교육수준의 비율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모의 교육수준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성별에 따른 부모의 교육수준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측정도구

심리사회적 적응지표

우울. 청소년들의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Radloff(1977)의 “우울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CES-D)”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CES-D는 원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도구이지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타당도와 신

표 1. 연구 참여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빈곤집단		비교집단		비교	
	남(n=78)	여(n=68)	남(n=160)	여(n=167)	집단	성별
평균연령(SD)	13.29(.60)	13.17(.62)	13.27(.62)	13.31(.69)	F(1,438) 1.103	F(1,438) .474
부 교육 수준 (%)					$\chi^2(3)$	$\chi^2(3)$
대졸이상	20(28.1)	16(26.7)	50(32.4)	54(35.3)	10.542*	4.407
고졸	48(67.6)	29(48.3)	93(60.4)	94(61.4)		
중졸	1(1.4)	11(18.3)	7(4.5)	5(3.3)		
중졸미만	2(2.8)	4(6.7)	4(2.6)	0(.0)		
모 교육 수준 (%)					$\chi^2(3)$	$\chi^2(3)$
대졸이상	8(10.9)	13(21.3)	29(18.7)	33(20.7)	5.811	7.562
고졸	54(73.0)	38(62.3)	107(69.1)	108(67.9)		
중졸	6(8.1)	9(14.8)	15(9.7)	17(10.7)		
중졸미만	6(8.1)	1(1.6)	4(2.6)	1(.6)		

* $p < .05$ ** $p < .01$ *** $p < .001$

뢰도가 검증되었다(이주영, 2000; Garrison, Addy, Jackson, et al., 1991). 지난 일주일 간의 정서 상태를 묻는 20개 문항에 대해 '전혀 없었다'부터 '매일 있었다'까지의 4점 척도로 답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개 문항들이 0.89의 내적 합치도를 보였다.

외현화 문제행동.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평가하기 위해서 오경자, 홍강의, 이혜련(1997)이 번안하여 표준화한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 척도(K-YSR)”에서 공격성 척도와 비행 척도의 문항에 Buhrmester(1992)의 “행동 연구조사(Activities Survey)”에서 일탈 행동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추가하여 총 35개 문항의 척도를 구성하였다. 기존 K-YSR의 문항으로는 청소년의 문제행동 전반에서 나타나는 일탈행동 일부를 측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성적인 행동, 유흥업소 출입, 공공기물 파괴, 흡연 등의 일탈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이 보강되었다. 각 문항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의 3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총 35문항에 대해 요인의 수를 2개로 지정하고 직교회전법으로 주축요인분석(principal axis factor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어느 요인에 대해서도 설명량이 높지 않는 6문항이 제거된 총 29문항이 본 분석에 사용되었다. 요인 1은 ‘남에게 못되게 군다’, ‘고함을 많이 지른다’와 같은 방해행동(disruptive behavior)으로, 요인 2는 ‘남의 물건을 빼앗는다’, ‘술을 마신다’와 같은 일탈행동(rule-breaking behavior)으로 구성 되었으며, 각 요인의 내적 합치도는 각각 0.85와 0.86이었고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0.87이었다.

환경요인

가족의 구조적 결손. 가족의 구조적 결손 여

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동거가족을 기록하도록 한 후 동거부모의 수효에 따라 부모 모두와 동거하는 경우(2), 부모 중 한 사람과만 동거하는 경우(1), 그리고 부모 모두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0)의 세 단계로 평가하였다.

가족의 정서적 환경. 가족의 정서적 환경을 평가하기 위하여 자녀구타, 부부간 폭력, 부모의 문제성 음주, 부부갈등, 부모의 우울 등 5개 문항에 대하여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0-3)로 응답하게 하여 다섯 문항에 대한 반응의 총점을 사용하였다.

친구의 비행 성향. 청소년기에 높은 빈도를 보이는 음주 등의 비행 행동 5개에 대해 자신과 주로 어울리는 친구들의 해당 정도를 ‘전혀 없다’, ‘일부’, ‘대부분’의 3점 척도로 표시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 5개 문항은 0.75의 내적 합치도를 보였다.

개인적 특성

스트레스 대처방식.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유안진과 민하영(1998)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대처행동 척도” 중 적극적 대처행동과 회피적 대처행동의 두 하위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제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점이나 배울 점을 찾으려 애써 봤다’ 또는 ‘나에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했다’ 등 18개 문항에 대해 각각 4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요인분석결과 어느 요인에 대해서도 설명량이 높지 않은 6개 문항을 제외한 17개 문항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적극적 대처 관련문항과 회피적 대처문항은 각각 10문항과 7문항이었고 본 연구에서 적극적 대처

기제가 0.85, 그리고 회피적 대처기제가 0.69의 내적 합치도를 보였다.

사회적 지지

부모 및 또래, 그리고 교사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Dubow & Ulman (1989)의 “사회적 지지 평가 척도(Social Support Appraisals Scale)”를 수정·보완하여 부모에 대한 8개 문항과 또래에 대한 8개 문항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교사로부터 받는 지지는 부모의 지지 8개 문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측정하였다. 각 영역의 8개 문항들이 보인 내적 합치도는 부모 0.90, 또래 0.91, 그리고 교사 0.9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결 과

집단별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집단에 따라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곤집단과 비교집단 청소년들의 각 심리사회적 적응 지표에서의 집단간 차이를 비교, 검증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집단(2)×성별(2)의 2원 변량분석 결과, 우울, 외현화 문제행동 모두에서 집단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여학생들은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우울 수준을 보고하였고, $F(1,469)=12.024, p<.001$, 다른 적응지표에서는 성차가 유의하지 않았다. 집단과 성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난 적응지표는 없었다.

잠재적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표 3에는 잠재적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과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지표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가 요약되어 있다. 심리사회적 적응지표 중에서 남녀 집단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 남녀학생 자료를 각각 분석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가족의 정서적 환경과 친구비행, 그리고 회피적 대처는 빈곤집단과 비교집단 남녀청소년에서 모두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적극적 대처방식이나 부모, 또래, 그리고 교사의 사회적 지지는 위험요인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의 적응에 관련되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의 내용은 빈곤집단과 비교집단, 그리고 남학생과 여학생집단에서 대체로 유사하였으나 가족의 정서적 환경, 부모 및 교사의 지지 등 일부 요인의 영향력은 집단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표 2. 빈곤집단과 비교집단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비교

	빈곤집단		비교집단		비교		
	남 (n=78)	여 (n=67)	남 (n=158)	여 (n=167)	성별 $F(1,469)$	집단 $F(1,469)$	성별 집단 $F(1,469)$
우울	16.32(9.19)	21.27(10.36)	16.95(10.28)	19.34(11.49)	12.024***	.376	1.458
외현화문제행동	11.71(7.26)	10.37(5.69)	9.96(7.12)	10.96(6.87)	.058	.702	2.881

* $p<.05$ ** $p<.01$ *** $p<.001$

표 3. 잠재적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과 심리사회적 적응지표의 상관관계

	우 울				외현화문제			
	빈곤		비교		빈곤		비교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u>환경요인</u>								
구조적 결손	.034	-.078	.034	-.107	-.192	-.176	-.099	.014
정서적 환경	.212	.536***	.210**	.439***	.388***	.237	.170*	.303***
또래비행	.100	.350**	.328***	.277***	.401**	.456***	.368***	.435***
<u>개인적특성</u>								
회피 대처	.437***	.350**	.229**	.252***	.233*	.391***	.334***	.284***
적극 대처	.194	.075	-.037	-.174*	.046	.145	.234**	.091
<u>사회적지지</u>								
부모지지	-.189	-.319**	-.360***	-.420***	-.018	-.109	-.159*	-.146
또래지지	-.425***	-.227	-.259***	-.278***	-.052	.089	-.002	-.031
교사지지	-.146	-.104	-.243**	-.283***	.061	.175	-.121	-.013

* $p < .05$ ** $p < .01$ *** $p < .001$

표 4. 환경요인, 개인의 성격적 특성,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다회귀분석(R^2)

		빈곤집단		비교집단	
		남	여	남	여
환경요인	우울	.051(ns)	.332***	.124***	.247***
	외현화문제	.302**	.271***	.161***	.271***
스트레스 대처	우울	.166***	.116*	.073***	.085***
	외현화문제	.056(ns)	.148**	.063***	.093***
사회적 지지	우울	.181**	.117*	.147***	.207***
	외현화문제	.008(ns)	.070(ns)	.042(ns)	.025(ns)

* $p < .05$ ** $p < .01$ *** $p < .001$

* 환경 요인: 가족의 구조적 결손, 가족의 정서적 환경, 친구비행성향
 스트레스 대처방식: 회피적 대처방식, 적극적 대처방식
 사회적 지지: 부모지지, 또래지지, 교사지지

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확인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단계 분석이 실시되었다. 일차적으로 상관관

계 분석에서 밝혀진 위험요인과 보호요인들을 1) 가족의 구조적 결손, 가족의 정서적 환경, 친구의 비행성향 등 환경요인, 2) 회피적 및 적극적 대처방식 등 스트레스 대처방식 3) 부모, 또래 교사의지지 등 사회적 지지요인의 세 변인군으로 나누어 자기보고로 평가된 우울과 외현화 문제행동 등 심리사회적 적응의 지표에 대한 각 변인군의 설명력을 중다회귀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그 다음 일차 중다회귀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이 확인된 변인군에 대해서는 다시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각 변인군 내의 개별요인들의 설명력을 확인하였다. 세 변인군의 설명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의 결과 표 4에, 그리고 유의한 설명력이 확인된 변인군에 대하여 각 개별요인들의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한 단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5에서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환경요인의 영향

우울에 대한 가족의 구조적 결손, 가족의 정서적 환경, 그리고 친구비행성향으로 구성된 환경요인의 설명력을 평가한 결과, 빈곤집단 남학생에서는 세 변인의 설명력이 모두 유의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반면, 빈곤집단 여학생집단과 비교 집단 남녀 학생집단에서는 각각 매우 중요한 영

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요인의 우울에 대한 설명력이 유의하였던 세 집단에 대하여 각각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빈곤집단 여학생의 경우, 가족의 정서적 환경이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보였다. 비교집단 남학생의 경우에는 친구의 비행성향이 우울에 대해서, 여학생에서는 가족의 정서적 환경이, 각각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친구의 비행성향이 이에 설명력을 추가하였다.

환경요인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설명력은 빈곤집단의 남학생, 여학생, 비교집단 남학생, 여학생, 네 집단에서 모두 유의하였다. 구체적인 기여변인으로는 친구의 비행성향이 비교집단의 남녀학생 및 빈곤집단의 여학생의 경우 공통적으로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인으로 나타났으나, 빈곤집단 남학생의 경우, 가족의 정서적 환경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였고, 친구비행성향 및 가족의 구조적 결손이 각각 유의한 추가설명력을 보여서 나머지 집단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가족의 구조적 결손은 빈곤집단 여학생에서도 친구비행성향 다음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추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빈곤집단에서는 가족의 구조적 결손 여부가 자녀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시사하였다.

요약하면, 여러 집단에 공통적으로 친구의 비

표 5. 환경요인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우울

		예측변인	R ²	R ² (adjusted)	R ² 변화량	F
빈곤집단	남					
	여	가족정서적요인	.287	.276	.287	26.139***
비교집단	남	친구비행성향	.103	.097	.103	18.031***
	여	가족정서적요인	.193	.188	.193	39.128***
		친구비행성향	.245	.236	.052	11.287***

* p < .05 ** p < .01 *** p < .001

표 6. 환경요인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 외현화된 문제행동

		예측변인	R ²	R ² (adjusted)	R ² 변화량	F
빈곤집단	남	가족정서적요인	.151	.139	.151	13.310 ***
		친구비행성향	.264	.244	.113	11.394 ***
		가족구조적결손	.302	.274	.038	4.000 *
	여	친구비행성향	.208	.196	.208	17.360 ***
		가족구조적결손	.264	.242	.056	4.939 *
비교집단	남	친구비행성향	.150	.145	.150	27.408 ***
	여	친구비행성향	.198	.193	.198	40.567 ***
		가족정서적요인	.261	.252	.063	13.842 ***

* p < .05 ** p < .01 *** p < .001

행성행과 가족의 정서적 위험요인이 청소년의 우울과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구조적 결손은 비교집단에서는 전체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지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비하여, 빈곤집단의 경우 남녀학생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영향

우울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회피대처와 적극대처의 두 변인의 전체 설명량이 빈곤집단 남학생, 빈곤집단 여학생, 비교집단 남학생, 비교집단 여학생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기여변인으로는 빈곤집단 남녀 학생에서는 회피적 대처가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고, 비교집단 남녀 학생에서는 회피적 대처방식이, 그리고 적극적 대처방식이 각각 추가 설명력을 가졌다.

외현화문제행동과는 빈곤집단 남학생을 제외하고는 빈곤집단 여학생, 비교집단 남학생, 여학생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통계적으로

표 7.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우울

		예측변인	R ²	R ² (adjusted)	R ² 변화량	F
빈곤집단	남	회피대처	.166	.156	.166	16.322 ***
	여	회피대처	.106	.092	.106	7.917 **
비교집단	남	회피대처	.050	.047	.050	17.931 ***
		적극대처	.073	.068	.023	8.645 **
	여	회피대처	.044	.041	.044	15.104 ***
		적극대처	.085	.079	.041	14.586 ***

* p < .05 ** p < .01 *** p < .001

표 8.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외현화된 문제행동

		예측변인	R ²	R ² (adjusted)	R ² 변화량	F
빈곤집단	남					
	여	회피대처	.147	.135	.147	11.586 **
비교집단	남	회피대처	.060	.057	.060	21.688 ***
	여	회피대처	.084	.081	.084	30.149 ***

* $p < .05$ ** $p < .01$ *** $p < .001$

표 9. 사회적 지지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우울

		예측변인	R ²	R ² (adjusted)	R ² 변화량	F
빈곤집단	남	또래지지	.176	.165	.176	15.641 ***
	여	부모지지	.095	.081	.095	6.732 *
비교집단	남	부모지지	.131	.125	.131	23.623 ***
	여	부모지지	.177	.172	.177	34.954 ***
		교사지지	.205	.195	.028	5.794 *

* $p < .05$ ** $p < .01$ *** $p < .001$

유의한 설명력을 보인 세 집단에서 모두 회피적 대처방식이 가장 중요한 변인이었다. 요약하면 회피적 대처방식은 전반적으로 청소년의 우울과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하여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영향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대해 가지는 설명력은 빈곤집단 남학생, 빈곤집단 여학생, 비교집단 남학생, 비교집단 여학생의 네 집단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구체적 기여변인으로는 빈곤집단 여학생 및 비교집단 남녀학생에서는 모두 부모의 지지가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분석되었으나, 빈곤집단 남학생에게는 부모의 지지는 유의하지 않았고, 또래의 지지가 가장 많은 변량을 설명하였다. 비교집단의 여학생의 경우에는 부모

의지지 이외에 교사의 지지도 유의한 설명력을 추가하였다.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전체 설명량은 빈곤가정 남녀 청소년과, 비교집단 남녀청소년에서 모두 유의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

요약하면 사회적 지지는 전반적으로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유의한 설명력을 지니지 못하였으나, 모든 집단에서 우울에 대해서는 유의한 설명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빈곤집단 남학생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부모의 지지는 가장 주요한 보호요인으로 나타났으나, 빈곤집단 남학생의 경우에는 부모의 지지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고 또래집단의 지지가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다. 또한 빈곤집단 여학생의 경우도 부모지지의 영향력은 유의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집단에 비하여 그 설명력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논 의

빈곤가정의 아동 청소년들이 대조군에 비하여 정신과적 장애로 진단될 확률이 3배 이상인 것으로 보고한 Costello 등(1996)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빈곤집단 청소년들이 비교집단에 비하여 우울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서 유의한 집단 차이를 보이지 않아 빈곤가정 청소년층에서 전반적으로 정서 행동문제가 많이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은 실증적 자료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았다. Conger, Conger, Elder Lorenz, Simons, Whitbeck(1992)는 청소년들의 자기보고로 평가한 반사회적 행동, 우울과 가족의 수입에 기초한 사회경제적 수준의 상관관계는 각각 $r=-.11$, $r=.02$ ($p>.05$)로, 가정경제수준과 자기 보고로 평가된 우울 및 문제행동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서구의 연구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자기보고로 평가된 우울과 문제행동에서 빈곤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하여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가 곧 빈곤집단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정신건강이 비교집단과 차이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임상적 진단을 통하여 다양한 정신장애의 유병율을 비교한 Costello 등(1996)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우울과 외현화 문제행동의 두 가지 측면에 국한하여 자기보고식 설문으로 평가한 결과를 비교하였으므로, 정신지체, 학습장애, 주의집중 장애 등 빈곤집단에서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부적응 문제들은 평가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일반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특수교육기관의 학생들이나 학교에 다니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장애를 보이는 청소년들이 표집에서 제외됨으로 인하여 빈곤집단의 부적응 문제가 과

소 추정 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기를 중심으로 빈곤의 영향을 평가하였는데, 빈곤가정에서의 성장경험이 가지는 부정적 영향은 발달단계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발달 초기의 빈곤경험이 그 이후의 빈곤경험보다 추후의 교육 및 직업에서의 성과에 더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Duncan & Brooks -Gunn, 1977), 우울에 대한 취약성도 어린 연령집단에서 더 큰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Fitzpatrick, 1993; McLoyd와 Wilson,1990). 이는 어린 아동의 경우 대처능력이 미성숙하고, 학교 등 가정 밖의 환경과의 접촉을 통하여 열악한 가정환경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Luthar(1999)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좌절과 부정적 역할모형에의 노출을 통하여 비행 등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위험도는 증가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실제로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빈곤집단 아동 청소년의 문제 행동이 증가하고(Dodge, Petti, & Bates, 1994), 학교 공부에 대한 관심의 감소와 함께 물질남용, 비행, 성 행동 등의 문제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어 있어(Jessor et al., 1995; Ripple & Luthar, 1998), 연령의 증가와 함께 부적응의 위험도가 증가할 뒷받침해주고 있다. 따라서 영유아 집단이나 초등학교 연령층, 혹은 고등학교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할 경우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빈곤이 심리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 발달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빈곤이 아동 및 청소년의 적응을 미치는 영향은 성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학령전기 및 초등학교 연령의 빈곤가정 아동을

조사하였을 때 남아가 여아보다 상대적으로 더 취약성을 보여 외현화 문제행동(Bolger, Patterson, Thompson & Kupersmidt, 1995), 학업부진 및 전반적인 학교생활 부적응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Eckenrode, Rowe, Laird, & Braithwaite, 1995). 또한 청소년기에 이르러서는 열악한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 비행에 개입될 가능성도 여아보다는 남아 집단에서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uthar, 1995; Ripple & Luthar, 1998). 반면 빈곤가정의 가족관계와 관련된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여아가 더 취약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Juarez, Viega, & Richards, 1997). 본 연구에서는 집단×성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으나, 빈곤집단과 비교집단의 차이가 남아의 경우에는 외현화 문제행동에서, 그리고 여아의 경우에는 우울에서 비교집단보다 각각 높은 수준을 보여, 서구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빈곤의 부정적 영향이 남아에게는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여아에게는 우울로 표출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응의 지표로 사용된 우울과 외현화 문제행동에서는 빈곤집단과 비교집단의 집단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던 반면, 빈곤집단 내에서 청소년들의 심리적 적응에서 상당한 개인 차이가 관찰되었고 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역할이 확인되었다. 청소년들의 심리적 적응지표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진 위험/보호요인들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밝혀진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가정의 구조적 결손과 가족내 갈등요인(deCubas & Field, 1993), 그리고 친구의 비행성향(Luthar & McMaon, 1996) 등 환경적 맥락에서의 위험요인, 회피적 대처방식, 적극적 대처방식 등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Cowen, Work, & Wyman, 1997), 그리고 부모, 교사, 또래의 사회적 지지(DeBois,

Felner, Meares & Krier, 1994; Werner & Smith, 1992) 등 서구의 연구에서 주요한 위험/보호요인으로 밝혀진 변인들은 본 연구에서도 빈곤집단과 비교집단에 공통적으로 우울, 외현화 문제행동 등 부정적 적응지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보였다. 이는 빈곤이 청소년들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가정환경 및 또래환경의 문제, 부모, 또래 및 교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대처행동 등의 요인이 매개요인 혹은 중재요인으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로, 빈곤청소년들을 위한 개입방안의 설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과 관련이 있는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의 내용 및 영향력은 전반적으로 빈곤집단과 비교집단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고, 성별에 따라서도 특별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몇 가지 흥미로운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가족의 정서적 환경은 여학생의 우울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나 남학생의 경우에는 우울과는 관련이 유의하지 않은 반면, 외현화 문제행동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빈곤가정의 여자 청소년 집단에서 가족의 정서적 환경이 우울이 특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기존의 선행연구(예, Juarez, Viega, & Richards, 1997)와 일관되는 결과로, 빈곤가정의 열악한 환경에서는 가족관련 위험요인의 부정적 영향이 더욱 증폭되어 나타날 가능성과 함께 가족내 갈등과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 특히 여자청소년이 더 취약함을 시사하는 자료로 해석될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남학생의 경우 가족의 정서적 환경이 유의한 설명력이 없었던 비교집단과는 대조적으로 빈곤집단 남자 청소년에서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하여 가족의 정서적 환경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인 것은, 열악한 환경조건에서는 위험

요인의 영향이 더욱 증폭되어 나타날 가능성과 함께 성별에 따라 취약성이 주로 표현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가족의 구조적 결손은 비교집단에서는 남녀 집단에 공통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없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빈곤집단에서는 외현화 문제행동에 유의한 위험요인으로 나타나, 빈곤가정의 열악한 환경조건과 결손가정이 결합될 경우 그 부정적 영향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빈곤집단과 비교집단의 차이는 사회적 지지의 역할에서도 나타났다. 예를 들어, 빈곤집단 남학생을 제외한 다른 집단의 경우 부모의 지지가 우울을 경감시키는 보호요인으로 나타났으나 빈곤집단 남학생의 경우에는 부모의 지지가 우울에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지 못하는 반면 또래의 지지는 유의한 설명력을 보였다. 이는 빈곤집단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지지가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빈곤집단 청소년들의 우울에서 또래의 지지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이들이 가정에서 부모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비행또래의 영향에 더욱 취약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있어서는 회피적 대처방식이 빈곤 및 비교집단의 남녀 청소년 집단의 우울과 외현화 문제행동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일반적인 위험요인으로 보인다. 회피적 대처행동과 우울과의 관계는 여러 연구에서 이미 검증된 바 있다. 특히 비교집단에 비하여 빈곤집단 남학생집단에서 회피적 대처행동의 우울에 대한 설명력이 현저하게 크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5.0% vs. 19.0%), 열악한 환경에서 개인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더 중요한 역할

을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Seifer, Sameroff, Baldwin과 Baldwin(1992)은 심리장애로 진단된 여성의 자녀의 발달과정을 추적 조사한 종단연구에서, 학업능력, 사회적 지지 등의 보호요인의 영향력이 심리장애로 진단된 여성의 자녀들(위험집단)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더 큰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영향력은 열악한 환경여건에서 더욱 비중이 커질 수 있음을 제시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가족의 정서적 환경의 경우, 우울에 대한 설명력이 빈곤집단 여학생에서 비교집단 여학생에 비하여 높았고, 남학생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영향력 역시 빈곤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아 빈곤가정의 열악한 환경에서는 가족의 정서적 환경의 문제에서 비롯된 부정적 영향이 더욱 증폭되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사회적 지지 등 보호요인의 영향력은 빈곤집단과 비교집단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지지 등 일부 보호요인의 영향력은 도리어 빈곤집단에서 더 약한 것으로 나타나, Seifer 등(1992)의 연구결과와 일치되지 않았다. Seifer 등(1992)의 연구는 정신장애로 진단된 여성의 자녀를 위험요인의 수효에 따라 고위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어 4세-13세에 걸쳐 추적 조사한 종단 연구로, 연구대상의 선정기준과 연령이 다를 뿐 아니라 조사에 포함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내용이 다르므로 본 연구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의 내용 및 영향력이 다른지 여부는 이론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최근 빈곤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빈곤의 세대간 전달의 기제로서 빈곤가정 자녀의 적응문제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절대빈곤층인 기초생활보호 대상의 수급가정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실태와 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조사함으로써 이들을 위한 지원정책이나 개입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는데 의의가 있다. 빈곤가정 청소년에 대한 기존의 국내연구에서는 비교집단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학교환경을 공유하는 비교집단을 연구에 포함시킴으로서, 빈곤가정 청소년들의 심리적 적응의 수준을 보다 개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각 심리적 적응지표에 대하여 환경요인, 개인적 특성, 사회적 지지요인의 영향력을 각각 평가함으로써 영역에 따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예방적 개입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빈곤가정 청소년을 위한 개입 프로그램에 대해 가지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빈곤집단과 비교집단 청소년들의 우울과 외현화 문제행동을 비교한 결과 집단간 차이는 유의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반면 집단 내 청소년들의 환경적 요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그리고 사회적지지 등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따라 심리적 적응수준에서 상당한 개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들의 역할을 활용한 개입프로그램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둘째, 빈곤가정 청소년들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환경요인의 영향력은 외현화문제행동과 여학생의 우울에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우울과 외현화 문제행동 등의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의 갈등, 부모의 정신건강, 가정폭력 등의 가정의 정서적 환경과 비행친구와의 교류 등의 또래 환경요인의 개선이 우선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사회적지지 또한 중요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스트레스 대처방식, 그리고 대인관계기술 향상을 목표로 하는 개입프로그램은 빈곤집단 청소년들의 심리적 부적응의 예방과 전반적인 적응의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의 대상이 초기 청소년기로 제한되어 있어 빈곤의 영향이 발달 단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학령 전 어린 아동부터 청소년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빈곤의 영향이 발달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알아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심리적 적응 및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평가가 자기보고로 이루어졌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객관적 기록 및 심층 심리평가 자료 등을 통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빈곤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개입방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확인을 넘어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 기제의 이해가 필요하다. 빈곤이 아동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기제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부모의 양육행동 및 부모자녀관계를 중요한 매개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Conger et.al, 1994; Felner et al., 1994; McCloyd et al., 1994). 즉, 빈곤은 부모의 우울감, 부모 역할 부부 갈등 등의 가족 기능에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부모 자녀 관계 및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주는 모델은 실증적 자료를 통해서 뒷받침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목표를 빈곤가정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과 보호요인의 탐색에 두었으므로, 동시에 측정된 심리적응의 지표와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나, 추후의 연구에서는 종단연구를 통하여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이 추후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기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정자 (1992). 청소년의 흡연지식과 흡연태도가 흡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 37-50.
- 박현선 (1998). 빈곤청소년의 위험 및 보호요소가 학교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11(2).
- 오경자, 하은혜, 이해련, 홍강의 (1997). K-YSR,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 중앙적성연구소
- 오승환 (2001). 결손가족 청소년의 적응 결정요인에 관한 비교연구: 부모 이혼, 별거가족과 사망가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17, 99-126.
- 유안진, 민하영 (1998).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대처행동 척도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6, 83-97.
- 이주영 (2000). 우울한 비행 청소년 집단의 사회적 대처 특성: 비행집단과 우울집단과의 비교.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혜경, 이훈구, 윤소연 (1998). 실직자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와 대응: 실직가정 아동과 비실직가정 아동의 정서문제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 1998 연차학술대회 학술발표 논문집, 819-842.
- Alpern, L., & Lyons-Ruth, K. (1993). Preschool children at social risk: Chronicity and timing of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and child behavior problems at school and hom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 371-387.
- Baldwin, A. L., Baldwin, C., & Cole, R. E. (1990). Stress-resistant families and stress Resistant children. In Rolf, J., Masten, A., Cicchetti, D., Nuechterlein, K., & S. Weintraub(Ed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lger, K. E., Patterson, C. J., Thompson, W. W., & Kupersmidt, J. B. (1995) Psychosocial adjustment among children experiencing persistent and intermittent family economic hardship. *Child Development*, 66, 1107-1129
- Buhrmester, D. (1992). *Friendship, competence, and adjustment in adolescence*. Unpublished grant proposal.
- Cicchetti, D., Rogosch, F. A., Lynch, M., & Holt, K. D. (1993) Resilience in maltreated children; Process leading to adaptive outcomes. *Development & Psychopathology*, 5, 629-648.
- Conger, R. D., Ge, X., Elder, G. H., Lorenz, F. O., & Simons, R. L. (1994) Economic stress, coercive family process, and developmental problems of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5, 541-561
- Costello, E. J., Angold, A., Burns, B. J., Stangl, D. K., Tweed, D. L., Erkanli, A. B., & Worthman, C. M.(1996). The Great Smoky Mountains Study of youth.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 1129-1136.
- Costello, E. J., Farmer, M. J., Angold, A., Burns, B. J., & Erkanli, A. (1997). Psychiatric disorders among American Indian and White youth in Appalachia: The Great Smoky Mountains

- Stud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7, 827-832.
- Cowen, E. L., Work, W. C., & Wyman, P. A. (1997). In S. S. Luthar, J. A. Burack, D. Cicchetti, & J. R. Weisz, (Eds.)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erspectives on adjustment, risk, and disorder* (pp. 527-547). New York; Cambridge.
- deCubas, M. M., & Field, T. (1993) Children of methadone-dependent women; Developmental outcome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3. 266-276
- DuBois, D. L., Felner, R. D., Meares, G., & Krier, M. (1994). Prospective investigation of the effect of socioeconomic disadvantage, life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early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 511-522
- Dubow, E. F., & Ullman, D. G. (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 52.
- Duncan, G. J., & Brooks-Gunn, J. (1997). Welfare's new rules: A pox on children. *Issues in Science and Technology*. 14, 67-73.
- Eckenrode, J., Rowe, E., Laird, M., & Braithwaite, J. (1995) Mobility as a mediator of the effects of child maltreatment on academic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66, 1130-1142
- Felner, R. D., Brand, S., DuBois, D. L., Adan, A. M., Mulhall, P. F., & Evans, E. G. (1995). Socioeconomic disadvantage, proximal environmental experiences, and socioemotional and academic adjustment in early adolescence; Investigation of a mediated effects model. *Child Development*, 66, 774-792
- Fitzpatrick, K. M. (1993) Exposure to violence and presence of depression among low-income African-american yout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528-531.
- Garmezy, N. (1991). Resiliency and vulnerability to adverse developmental outcomes associated with povert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 416-430.
- Garrison, C. Z., Addy, C. L., Jackson, K. L., McKeown, R. E., & Waller, J. L. (1991). The CES-D as a screen for depression and other psychiatric disorders in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0, 636-641.
- Gomez, R., Bounds, J., Holmberg, K., Fullarton, C., & Gomez (1999). Effects of neuroticism and avoidant coping style on maladjustment during early adolescenc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6, 305-319.
- Haapassalo, J., & Tremblay, R. E. (1994). Physically aggressive boys from ages 6 to 12; Family background, parenting behavior and prediction of delinquenc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2, 1044-105
- Harter, S. (1988). *Manual for the self-perceptions profile for adolescents*. University of Denver, CO.
- Jessor, R. (1991). Risk behavior in adolescence: a psychosoci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and action, *The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12, 597-605.
- Jessor, R., Van DenBos, J., Costa, F. M. & Turbin, M. S. (1995) Protective factors in adolescent problem behavior; Moderator effects and developmental change. *Developmental Psychology*, 31, 923-933.

- Juarez, S. C., Viega, B., & Richards, M. H. (1997). *The moderating effect of family environment on exposure to violence and PTSD symptoms*.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conference of the Society for Research on Child Development, Washington DC.
- Krenke, I. S. (2000). Causal links between stressful events, coping style, and adolescent symptomatology, *Journal of Adolescence*, 23, 675-691.
- Luthar, S. S. (1991).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A Study of High-Risk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2, 600-616.
- Luthar, S. S. (1995). Social competence in the school setting; Prospective cross-domain associations among inner-city teens. *Child Development*, 66, 416-429
- Luthar, S. S. (1999). *Poverty and children's adjustment*.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Mayer, S. E. (1997). *What money can't buy: Family income and children's life chanc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cLanahan, S. S. (1997) Parent absence or poverty; Which matters more? In G. J. Duncan & J. Brooks-Gunn(Eds),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pp.35-48). New York; Russell Sage.
- McLoyd, V. C. (1990) The impact of economic hardship on Black families and children; Psychological distress, parenting,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1, 311-326
- McLoyd, V. C., Jayaratne, T. E., Ceballo, R., & Borquez, J. (1994) Unemployment and work interruption among African-American single mothers; Effects on parenting and adolescent socioemotion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65, 562-589
- McLoyd, V. C., & Wilson, L. (1990) Maternal behavior, social support, and economic conditions as predictors of distress in children. In V. C. McLoyd & C. A. Flanagan(Eds.),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Vol. 46) Economic distress; Effects on family life and child development*. San Francisco; Jossey-Bass
- Muris, P., Schmidt, H., Lambrichs, R., & Meesters, C. (2001). Protective and vulnerability factors of depression in normal adolescent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9, 555-565.
- Offord, D., Boyle, M., & Racine, Y. (1991) *Ontario child health study' Children at risk*. Ontario, Canada' Queen's Printer for Ontario.
- Osborn, A. F. (1990) Resilient children; A longitudinal study of high achieving socially disadvantaged children.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62, 23-47
- Peterson, P. L., Hawkins, J. D., Abbott, R. D., & Catalano, R. F. (1994) Disentangling the effect of drinking by black and white adolescent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4, 203-227.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Ripple, C., & Luthar, S. S. (1998). *Long-term predictors of academic adjustment and high school dropout among inner-city adolescents*.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Seifer, R., Sameroff, A. J., Baldwin, C., & Baldwin, A. (1992). Child and family factors that ameliorate risk between 4 and 13 years of ag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1(5), 893-903.

Werner, E. E., & Smith, R. S. (1992). *Overcoming the odds: High risk children from birth to adulthood*.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원고접수일 : 2004. 6. 11

게재결정일 : 2004. 12. 15

K C I

Poverty and Psychosocial Adjustment of Adolescents: Exploration of Risk Factors and Protective Factors

Kyung Ja Oh Eun Yee Kim Ryemi Do Yookyung Eoh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146 adolescents from low income families on public assistance(Low Income Group) were compared to the Comparison Group of 327 adolescents in the psychosocial adjustment, and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ssociated with their adjustment were examined. The Low Income Group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from the Comparison Group in self-reported depression and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Family risk factor, association with delinquent peers and avoidant coping style significantly increased risk for depression and externalizing problems, while positive coping style of adolescents and social support from parents, peers and teachers emerged as important protective factors. Family-related risk factor appeared to be more important for psychosocial adjustment of girls compared to boys, while protective function of parental support appeared to be considerably weakened in the Low-income Group, suggesting that specific influence of risk and protective factors might differ depending upon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context of the group.

Keywords : Poverty, Psychosocial Adjustment of Adolescents, Risk Factors, Protective Factors